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 "다락방예배 - 8월 중 방학한다."

무더운 여름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습도가 높아 끈끈해 서로가 스치기만 해도 기분을 상할 정도로 불쾌지수는 높아가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아 출타한 이들이 많은 계절이다. 이러한 때에 서로가 모이면 덥고 피곤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본 교회에서는 오는 8월 한 달간 다락방 예배를 잠시 쉬는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기간은 8월 한 달간이며 이 기간 중에 다락방을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각 교구일꾼들은 자신의 다락방과 교구의 교인들의 안부와 신앙 상태 및 유고사항 등을 전화로 확인하여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하게 된다.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의 유고사항이 접수될 때에는 교역자가 심방하고 위로하게 된다.

다락방 예배는 8월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오는 9월 첫 주에 다시 개강하게 된다.

## 여름 농촌 전도봉사대로 모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복된 일이지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삼복대위를 무색하게 만들 정열을 가지고, 우리로 인하여 살아날 영혼들을 생각하는 설렘으로 올해 우리의 전도지로 선정된 전북 완주군 모악제일교회로 갈 봉사대를 모집한다.

농촌 봉사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한어름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냉수 같은 인생의 답으로 인근지역의 목마른 많은 영혼들에게 시원한 해갈을 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인근지역의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청년-대학생들을 찾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전도에 필요한 물품 후원을 계속하여 접수하고 있다.

▶필요물품: 돋보기, 대원용 티셔츠, 성경학교용 티셔츠, 성경학교 교육용품, 전도용비누, 전도용 부채와 티슈, 컴퓨터 1대, 장례용 휘장 1세트, 교회안내표지판 1개.(접수 및 문의는 사무국으로)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은혜 중에 마무리하다

올 여름 교육위원회에서 "임하소서 성령이여"란 주제 하에 계획하였던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다. 유치부에서 장년1부에 이르는 젊은 성도들과 장년 5부의 성도들이 교회와 야외에 모여 함께 화목함과 공동체 의식을 배우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왔다.

이제는 그 동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후반기 교회학교 일정을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신 생명을 계속하여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한편, 교회 여름행사 중 마지막으로 남은 두 가지 행사인 농촌전도대와 단기선교팀 파송을 위해 계속적인 기도가 요청된다.

### 찬양대원 모집

찬양위원회는 호산나(수요1부)찬양대와 시온(수요2부)찬양대 및 각 찬양대에서 대원으로 봉사할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 평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며 실력을 가다듬기 바란다.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 영어 성경반 교사 모집

영어 성경반에서는 초급 및 중등반 학생의 숫자 증가와 대학부 청년부에서 설치 요청이 있어 교사로 봉사하실 분을 찾고 있다. 영어 성경반에서는 영어로 성경을 강의하고 있으며, 교사의 자격은 세례교인인면서 가급적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영어로 말하기에 충분히 숙달하신 분으로써 어법에 정확히 맞는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면 가능하다. 국내에서 영어를 공부하신 분이라도 위에 설명한 요건에 맞는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신 분도 환영한다. 연락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 공산권 선교를 위한 선교사를 파송한다.

우리교회는 기도하던 공산권 선교를 위해 신학교 부지를 답사 완료하였고 그 곳으로 파견할 선교사를 8월5일(주일) 저녁 찬양예배시에 파송케 된다. 우리가 파송할 선교사는 홍의만 목사 내외분으로 이분들은 공산권 현지에서 자생교회와 협력하여 선교활동을 하게 된다. 이제 시작되는 선한 사업이 사탄의 방해를 딛고 승리하여 열매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선교사가 되어 뜨거운 기도를 계속할 때가 되었다.

### 예배시간 중 휴대전화기 사용 자제를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소리로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예배 중에 울리는 휴대전화의 벨소리는 자신의 예배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를 당황하게 하여 예배에 중대한 차질을 주게 된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에 자신의 가방과 주머니를 확인하여 휴대폰을 끄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자.

### 단기선교팀 파송 2주전

단기선교팀의 파송이 2주 앞으로 다가와 출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7월27일 현재까지 총 27명의 항공권이 발권 완료되었다. 선교팀은 성도들의 기도후원을 무엇보다도 간구하고 있으며 선교에 필요한 의류, 문구류, 사탕류, 생활잡화, 등등의 물자가 필요하여 후원을 바라고 있다.

### 단기선교팀 현장체험 -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



7시 20분 청계산에 도착 - 등반전 기도로 시작하는 단기선교팀

앞에 가는 자, 따라 가는 자 모두 지치기 시작...



11시 40분 매봉령 정상에서 - 이보다 더한 고통도 이겨내리라.



잠시 휴식- 비도 오고 배도 고프고..

# 이사야서 강해

# 이방의 빛

## (이사야 49:1 - 6)



이중윤 목사

본문은 선지자 자신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말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말씀입니다.

### 1. 메시아 소식에 대하여 경청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들어야 할 기쁨의 큰 소식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는 큰 기사도 하루만 지나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며 세월을 두고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소식입니다.

이사야 48장은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섬들'과 '먼 곳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섬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칭합니다.

메시아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집니다. 모든 이방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이방에 전해져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할 위대한 소식입니다.

"섬들이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1절).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만일 오늘 내가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 2. 메시아, 그는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1절). 하나님은 메시아직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란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 천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며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학자 바빙크는 구약에 456회에 걸쳐서 메시아 예언이 나왔음을 연구했고 또 히스

팅은 구약 전체가 메시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히 4:12). 메시아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말씀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대적을 엿드리지게 하십니다(요 18:6).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때가 차기까지 비밀히 숨겨주시기도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며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3절). 메시아의 사명은 여호와와 함께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며 또는 다윗이라고도(사 55:3), 야곱이라고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명칭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본문 5, 6절의 '나라'는 1인칭 대명사는 이스라엘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종 된 그리스도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자 메시아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요 17:1).

### 3. 하나님이 크신 섭리가 이방에 전애됨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4절). 메시아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큰 수고를 하셨으나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 즉 이방인을 부르심으로 유대인이 이를 시기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과에 집착하여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전체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여 일을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결과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선한 일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

장 좋은 일도 결과는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는 결과에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5절). 메시아는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메시아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신앙 때문에 그 택하신 백성을 모으는 일에 실패하신 것 같으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도 역시 이스라엘입니다(롬 4:16). 그러므로 메시아 사역은 어떤 의미든지 야곱 곧 택한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지파 곧 유대 민족을 영적으로 일으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메시아의 사역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 운동은 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방인들로 하여금 수다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사역시 가나안 여인(마 15:21 - 28)과 사마리아 여인(요 4:3 - 26), 로마의 백부장(마 8:5 - 13)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가 승천한 후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은 전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방의 빛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실패자로 여겼지만 그는 결국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메시아를 닮아 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유년부 채원석

어제부터 오늘까지 재미있는 놀이, 게임, 예배도 드렸다. 공동체 훈련까지 하였는데 그 속에서 협동심이 길러졌다. 수훈이와 나, 승세가 조장을 맡았는데 너무 화만 내고 잘못했던 게 정말 후회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협동심이 더 많았다면 하는 후회감이 많아진다. 협동심이 적어 우리 조는 졌다. 우리 조가 다시 다음에 모여 협동심을 키워 1등을 했으면 좋겠다.

### 김성호(3학년)

오늘 친구 윤성이와 교회에 왔다. 나는 옛날에도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봤었지만 오늘이 제일 좋았다. 특히 점심시간과 공동체 훈련이 제일 좋았다. 나는 공동체 훈련 중에 2센터, 5센터가 제일 좋았다.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또 여기에서처럼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을 빌며 살겠다.



### 정다은(1학년)

나는 게임이 재미있었다. 근데 오늘은 처음 와서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짜장면이 맛있었다. 여기에서 매일 기도하고 싶다. 동생 병이 빨리 나으라고 엄마 아빠 동생 내가 오래 오래 건강하라고.



### 최윤성(3학년)

저는 어제 태권도 캠프 때문에 오지 못해 하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2명의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재미가 없을까 봐 미안해서 화도 많이 내었지만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 - 비눗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 거룩이 꼬리잡고 물고기 따라...

# "은혜로운 수련회 믿음의 동산"

다. 지금까지 바라보는 자의 자리에서 있었지만 이번엔 함께 동참하며 준비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축복이 있었다.

미리 릴레이 금식하며 늦은 시간까지 며칠을 함께 모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보았다.

아이들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어디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감동의 물결이 홍수처럼 밀려와 함께 동화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시간들이었다.

특강시간-"성령과 교회"란 제목으로 조대영 전도사님의 강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눈과 마음을 온통 끌어당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준비한 사랑의 식단-한마디로 "예술" 그 자체였다.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안타까운 일은 모든 순서를 총괄하여 준비하시던 조선영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채 병원에 입원하셨다. 은혜를 방해하는 세력이라 생각되지만 기도하며 준비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었고 선생님의 빠른



중등부 - 진지한 자세, 역시 교육1국의 믿음이야

비가 내리는 창문을 보며 수련회 내내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수련회 장소인 산음 휴양림에 도착할 즈음 무겁게 쏟아지던 비는 그치고 맑고 시원한 날씨를 2박 3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과 저녁 집회 때의 이태훈 전도



중등부 - 이 촛불처럼 우리도 자신만의 이익을 찾지 말자.

사님의 말씀은 새 천년을 맞아 진실함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았던 나의 하루 하루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며 자부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지 않고 겸손하지도 못했던 나는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찾는 바벨리안(아만인)이었던 것은 아닐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목표가 2가지 생겼다. 수련회 기간동안 항상 함께 하였던 주님이 앞으로 나의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룰 것이다.

우선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것이다. 언제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종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현재보다 미래를 자기보다 전체를 생각하자'라는 이 말을 언제나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생활할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요즘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안에서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다.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고개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지난 나의 생활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좋은 추억들로 가득찬 이번 여름 수련회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이제 약간의 기대와 설렘으로 다시 세상에 나간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쉼 없이 기도하며 전에도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신 이종윤 목사님의 중등부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함께 하였던 이규정 목사님과 이태훈 전도사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이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도록 계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 이 세상을 함께 나아가자.

케유를 본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섬김의 아름다움을 배웠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수고하신 사랑부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중등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보연 (중등부)

## "사랑부 성경학교를 마치고"

-섬기는 아름다움-  
권기욱(사랑부 교사)

"임하소서 성령이여"란 주제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 선생님들이 연기자가 되고, 성우가 되고, 무용수가 되어 시간 시간 즐겁고 진지하며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무대와 관객이 아닐 수 없었

-인터뷰 이 사람-

아름다운 신앙

- 봉사로 더욱 커지는 삶의 기쁨

많은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복음과 전도를 이야기 할 때 늘 대두되는 화두(話頭)중의 하나가 아마 교회와 지역사회의 문제일 것이다.

수많은 방법론들이 제시되고 교회들은 저마다 지역 사회와의 융합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력하며 교계의 각종 매체들은 지역사회 복음의 성공적인 사례라며 기사들을 쏟아내곤 한다.

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에 한발 더 다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 돕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인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떤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음의 방법론이나 프로그램들

에 우선하는 것이 아닐까

마침 매주 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한티공원을 청소한다는 김계술 집사(새가족부 부감)를 공원에서 교회로 들어오는 길 양편의 쓰레기들을 줍고 있는 현장에서 만났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며 극구 기자와의 인터뷰를 피하려는 그에게 이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찾는 새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공원쪽이 지저분해 새 가족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쓰레기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만 한편으론 이곳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한 이곳에 특히 토요일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이 엄청난 것을 보고는 도저히 모른 척 할 수는 없더군요.”

의외로 소박하고 단순한 듯한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이 공원을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가꾸고 관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전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믿음과 확신이 느껴진다.

어제 폭우로 쓰레기들이 비에 많이 쓸려 내려가 온 늘은 쓰레기가 많지 않다면, 대화 중에도 연신 쓰레기를 주워 담던 그가 “보통 수 백번 이상은 집게질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어느 정도 공원이 깨끗해지는 것 같더군요.”라며 미소를 짓는다

그런 그에게 소리 없이 봉사한다, 헌신적이다 라고 한다면 지나친 칭찬수식어가 되는 것일까?

김시환(편집부)



단기 선교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치앙마이로 출국 D-15일

이양철 집사 (11 교구)

올 여름은 일찍부터 유난히도 무덥습니다.

단기 선교팀의 뜨거운 헌신의 열정이 올 여름을 더욱 덥게 한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파송 받기 위하여 4월에 시작된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현지 적응훈련(등산)도 마쳤습니다. 짐도 쉐기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나고 묻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답: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기도와 물질로)

온 교회가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는 더위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큰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헌신자들의 열정이 결코 식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국 단기선교를 위한 후원을

치앙마이의 카렌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은 물론 현지의 교회를 보수하고 신축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떠나는 이번 단기선교팀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바라며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 후원자를 모집한다.

단기선교팀은 온 교우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따뜻한 손길을 보내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농촌전도대와 단기 선교팀의 영력을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등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로로 5분 거리

주기를 바란다.

단기선교팀 명단

- 고경선, 박철훈, 오정수, 이양철, 이영희, 허 숙, 최화숙, 김성환, 오유록, 안용주, 최요셉, 신두호, 조종화, 유수진, 박소은, 이조은, 신성훈, 김성일, 임영여, 오선혜, 유은경, 노재균, 이슬기, 박정민, 이운재, 임종현, 조형준 (27명)

7월 새가족 환영회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간에 갖는다.

7월에 등록된 새가족은 다음과 같다.

- 강태근 강현중 고영복 광노국 구순영 김이현 김 인 김도형 김인화 김은화 김성순 김희경 신선주 신정민 서정보 오미옥 유상재 이경식 이금순 이선우 이소정 이수현 인용자 임미자 장숙향 장지만 정유선 조남일 한계복 홍영균 홍인선 황선영  
이상 32명과 오늘 등록하신 분

농촌전도봉사대 후원자 명단

- 박순옥권사, 에스더여전도회, 사라여전도회, 양인수집사, 이양철집사, 유율상집사, 스테반회, 김사무엘장로, 김순자 권사.

동정

- 이중윤 목사는 7월 31일 강남구 대치동 1017-1 신구 노빌리티 빌리지로 이사한다.
- 정동호 집사 (1교구) - 25일 카자흐스탄으로 예수전도단과 함께 단기 선교를 위해 출국하다.
- 김운석 성도 (4교구) - 유치, 유년, 초등부 여성성경학교 선물 기증(인행회)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노문환 장로 장정화 권사 가정 어머니(천병희 권사)의 생신을 감사하며